

철판 부식 원인 규명도 없이...한빛원전 재가동 논란

<1·2호기>

환경단체 “원안위 분석 엉터리...재가동 철회를”...한수원 “안전 확인”

격납건물 철판 부식이 발생한 영광 한빛원전 1·2호기가 잇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을 거쳐 재가동에 들어가자 원자력발전소 전문가와 환경단체가 ‘명확한 원인규명과 대책수립’을 촉구하며 규제당국과 원전사업자 양측을 비판했다. 부식이 발생한 한빛 1·2호기의 경우 가동 30년이 넘는 노후 원전인데다 원전 격납건물 철판이 원전 사고시 방사성물질 외부 유출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땀집 정비 후 선부분 재가동은 안전에 치명적이라는 지적이다.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러나

“규제기관인 원안위 승인을 거쳤고 부식이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철판은 새철판으로 교체한 후 안전성 확인을 마쳤다”는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은 6일 기자회견 후 “원전 격납건물 철판은 사고 발생시 인체와 환경에 치명적인 방사성물질을 외부와 차단하는 최후 보루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을 거쳐 지난 5일 한빛 1호기, 지난달 21일 한빛 2호기를 재가동했다. 2개 원전 모두 격납건물 철판 부식 현상이 관찰된 곳이다.

환경운동연합, 동국대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겸임교수인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 소장 등 전문가들은 “한빛원전 1·2호기, 한울 1호기, 고리 3호기 등 총 4곳 원전의 격납건물 철판에서 부식이 발견됐는데 원전 사업자는 물론 규제기관인 원안위조차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재가동 승인을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격납건물 철판은 라이너플레이트라고도 불리는 데, 원자로 용기가 들어있는 격납건물 외벽인 1.2m 두께의 콘크리트 바로 안쪽을 둘러싼 6mm 두께 철판이다. 방사성물질이 누설되지 않도록 외벽 안쪽에 추가로 설치한 방호벽이다.

한 소장에 따르면 원안위는 한빛 2호기에서 지난해 6월 첫 부식이 발견되자 “1983년 건설 당시 고층 크레인이 쓰러지면서 건물을 건드리는 사고가 있어서 조처하는 과정에 부식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고 부식 원인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빛 1호기에서도 부식이 확인되자, 원안위는 “바다 쪽 방향에서 부식이 발견된 것으로 봤을 때 소금 머금은 해풍이 원인인 듯하다”고 말을 바꿨다. 이어 고리 3호기에서도 부식이 발견되고 이번엔 바다 아닌 방향에서 부식이 확인되자, 원안위는 원인 규명 없이 “전체 원전의 라이너플레이트를 점검하겠다”고만 밝히고 한빛 2호기와 1호기 재가동을 연이어 승인했다는 게 원자력전문가 및 환경단체의 설명이다.

한 소장은 “해의 라이너플레이트 부식 사례를 분석해보면 라이너플레이트 길의 콘크리트에 불순물이 있거나, 콘크리트 산성도가 강한 염기에서 다소 중화됐거나 하는 등 콘크리트의 문제로 밝혀졌다”면서 “시공 당시 사고나 해풍이 원인이라는 원안위 분석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식 원인 규명을 위해 부실시공, 부실설계, 환경영향, 노후화 결과, 재료 결함이나 불량 등 광범위한 검토와 조사,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규제기관인 원안위가 규제의 일관성을 갖고 원인 규명을 못하면 재가동 승인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미 승인한 재가동도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빛원전 2호기 격납건물철판에서는 지난해 135개의 부식이 확인됐고 이 가운데 일부는 관통부(미세구멍)도 발견됐다. 이후 한빛 1호기에서도 부식된 곳 50개, 한울 1호기 7개, 고리 3호기 127개가 확인됐다. 원안위는 국내 전체 원전을 상대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초·중·고 5·18 교육 강화 광주교육청 2시간 이상 교육 방침

광주교육청이 광주 초·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한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역사 쿠데타 등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6일 광주시교육청이 5·18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수립한 5·18 교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우선, 5월 18~27일을 ‘5·18 민주화운동 기념 주간’으로 정해 모든 학교가 2시간 이상 5·18 교육을 진행하게 된다.

일선 학교에서는 도덕·사회·한국사 교과 수업을 진행하면서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제목의 인성교과서와 ‘달마다 만드는 민주시민 이야기’, ‘5월, 청소년을 기억하다’, ‘오월 오색 이야기’ 등을 활용해 수업을 진행토록 했다.

기념 주간에는 반드시 기념식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고 5·18 계기수업도 필수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인기 애니메이션 ‘명탐정 코난’을 각색, 10일간의 항쟁을 스토리로 왜곡된 진실을 찾아 알리는 ‘5·18 빅게임-명탐정 코난 : 오월의 문 앞에서’라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청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5·18레드페스타 RED FESTA’, ‘5·18전국고등학생토론회’ 등 행사에 학생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 기록을 기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체험 및 기획 전시 관람’, ‘5·18 당시 희생된 학생들이 다녔던 학교별 추모행사’ 등도 마련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5월 교육 내실화를 위해 6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강당에서 ‘5·18 민주화운동 교육 담당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게 책이나” 6일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 주관으로 옛 전남도청에서 열린 ‘전두환 회고록 망언 규탄’ 기자회견에서 5·18 희생자 어머니들이 전두환 회고록 표지를 인쇄한 종이를 찢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학살자 전두환 다시 법정 세우겠다”

시민단체 회견 “회고록 망언 책임 묻고 미납금 추징 끝까지 감시”

광주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는 6일 옛 전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고록 망언을 쏟아낸 광주 학살자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우고 미납 추징금 납부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5·18행사위는 “학살자 전두환의 망언을 통해 우리 사회 적폐정산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면서 “참회록을 써야 할 자가 거짓 주장을 회고록을 통해 쏟아낸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겠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특히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하와 왜곡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5·18공인보고서가 채택되고 광주학살에 대한 실체적 진상규명, 발표책임자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또한 5·18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 건물 원형복원과 임을 위한 행진곡 5·18기념곡 지정에도 힘을 쏟겠다”고 다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자신을 ‘5·18의 치유를 위한 깃감곳의 제물’로 표현했고 이순재씨는 자서전을 통해 자신을 ‘5·18 사태의 억울한 희생자’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던 고(故) 피터슨 목사와 조비오 신부에 대해 “목사라는 사람이 무슨 이유로 가짜 사진까지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 것인지... 가면을 쓴

사탄이었다는 생각이 든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재판할 ‘정치 재판’, ‘정치보복’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하는 내용을, ‘5·18 당시 북한 특수요원들이 다수가 무장시위대 속에 시민으로 위장해 있을 터였다’는 주장도 회고록에 담았다. 그러나 피터슨 목사, 조비오 신부의 헬기사격 증언은 전 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명백한 사실로 자리 잡고 있다. 37년간 헬기사격 의혹은 목격담만 무성했으나, 올해 초 옛 전남도청과 이웃한 금남로 전일빌딩 건물 10층에서 150여점의 총탄흔적이 발견되면 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일빌딩 총탄흔적에 대해 ‘제자리 비행 중인 헬기에서 쏜 총탄흔적’이라는 감정결과를 내놨다.

5·18 당시 북한특수요원 광주 잠입설 관련해선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도 “사실무근”이라고 했으며, 미국 중앙정보국(CIA)조차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기밀문건을 작성,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알려왔습니다 광주일보 5일자 7면 ‘팁 서록, 5·18 당시 軍은 전두환 통제 아래 있었다’는 제목의 기사 중 “헬기 사격으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을 치료했다는 증언을 들었다”는 팁서록의 발언은 “군인 사격으로 희생된 사람들을 여럿 수술했다”는 내용을 잘못 통역한 것이라고 광주시가 알려왔습니다.

가짜뉴스에 속지 않습니다

가짜뉴스 청정지역 신문입니다

가짜 뉴스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가짜 정보들이 세상을 혼탁하게 합니다. 믿을 수 있는 알찬 정보의 신문이 더 빛나는 이유입니다. 전문 취재인력과 다단계의 게이트 키퍼밍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생산하는 곳은 오직 신문밖에 없습니다. 신문을 보면 가짜 뉴스도 보입니다.

바른 정보가 바른 세상을 만듭니다

한국신문협회
Korean Association of Newspapers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1	달ตก 15:11		
		해질 18:58	달질 03:55		
나들이 하기 좋은 날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맑은뒤 흐림	10/24	보성	맑은뒤 흐림	7/19
목포	맑은뒤 흐림	8/19	순천	맑은뒤 흐림	10/20
여수	맑은뒤 흐림	12/19	영광	맑은뒤 흐림	6/21
나주	맑은뒤 흐림	7/23	진도	맑은뒤 흐림	9/17
완도	맑은뒤 흐림	10/19	전주	맑은뒤 흐림	9/24
구례	맑은뒤 흐림	6/23	군산	맑은뒤 흐림	8/22
강진	맑은뒤 흐림	8/20	남원	맑은뒤 흐림	6/24
해남	맑은뒤 흐림	7/19	흑산도	맑은뒤 흐림	6/14
장성	맑은뒤 흐림	6/2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안바다	동~남동	0.5~1.5		
남해 남부	안바다	동~남동	1.0~2.5		
서해 북부	안바다	남~남서	1.0~2.5		
남해 북부	안바다(동면바다(서))	남~남서	2.0~3.0		
		남~남서	2.0~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4:24	11:43		
		17:13	-:-		
여수		00:18	06:50		
		13:05	19:16		
◇ 주간 날씨					
8(토)	9(일)	10(월)	11(화)		
12/21	11/19	8/20	9/19		
			12(수)		
			9/20		
			13(목)		
			8/19		
			14(금)		
			7/18		